



KIA·광주FC 오심에 올라

KIA 타이거즈와 광주 FC가 지난 9일 나란히 오심의 희생양이 됐다. KIA는 두산과의 원정경기에서 9회 타진 김호영의 동점 투런(왼쪽)에도 불구하고 보크 오심으로 역전의 기회를 날렸다. 광주는 인천과의 홈경기에서 오프사이드 오심으로 2-2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다. 경기가 끝난 뒤 그라운드에 누운 채 아쉬워하고 있는 광주 FC 송승민(오른쪽) (KIA 타이거즈·광주 FC 제공)

KIA, 9일 김주찬 홈 섀도때 보크 판정안돼...역전 기회 놓치고 끝내기패

광주FC, 인천에 2-0 앞서다 오프사이드 선언 안돼 골 허용...2-2로 비겨

기쁨의 환호가 아쉬움의 탄식으로 바뀐 주말 그라운드였다.

지난 9일 KIA 타이거즈와 광주 FC는 각각 잠실과 안방에서 승리 사냥에 나섰다.

집중 터워에도 KIA와 광주는 응원하는 많은 팬이 관람석을 지켰지만 이들은 쓸쓸하게 경기장을 빠져나가야 했다.

KIA는 이날 10회 연장 승부 끝에 6-7 역전패를 당했고, 광주는 2-0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면서 패배 같은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승리에 대한 아쉬움 보다 컸던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온 오심이다. 보크와 오프사이드가 논란의 중심에 있다.

전날 두산전 연패를 끊어낸 KIA는 9일에도 1회부터 차근차근 점수를 만들면서 분위기를 끌어왔다. 하지만 4-0으로 앞선 3회 선발 임기준의 고질적인 제구 난조와 함께 4-2로 점수가 좁혀졌다. 6회에는 한

승혁의 빠른 공이 공략당하면서 4-5로 승부가 뒤집혔다. 7회 최영필이 양의지에게 솔로포를 허용하면서 4-6.

하지만 9회초 기적 같은 한방이 나왔다. 대타 김주환의 안타에 이어 김호영이 이현승을 상대로 잠실 담장을 넘기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끓어오른 분위기가 속 상대의 실책까지 나오면서 KIA는 2사 1-3루의 기회를 이어갔다. 그러나 서동욱의 타석에서 두고두고 아쉬울 장면이 나왔다.

필이 2루를 훑치면서 2사 2-3루, 2B-2S의 볼카운트에서 서동욱이 공을 기다리고 있었다. 발 빠른 3루 주자 김주찬이 기습적으로 움직였고 이에 이현승이 평소 투구 패턴과 다르게 멈춤 동작 없이 급하게 홈으로 공을 뿌렸다. 그러나 심판의 판정은 보크가 아니라 스타트를 끊은 김주찬의 도루 실책이었다.

정상적으로 보크가 선언됐다면 김주찬이 홈을 밟으면서 KIA가 역전을 하는 상황. 여기에 2사 3루의 기회까지 이어갈 수 있었지만 심판진은 김기태 감독의 항의를 외면했다. 결국 승부는 연장까지 갔고, KIA는 박찬호의 끝내기 실책으로 6-7로 졌다.

광주 FC를 울린 것은 '오프사이드'였다.

경기 시작과 함께 광주 선수들이 라인을 위로 올리고 적극적인 공세에 나섰다. 인천의 실수 연발 속에 베테랑 정조국이 전반전 주인공이 됐다. 전반 12분 상대 실수를 틈 타 공을 넣은 주현우가 수비수들을 따돌리고 정조국에게 공을 넘겨줬다. 그리고 정조국의 오른발이 골망을 흔들었다.

전반 27분에 정조국이 다시 한번 활짝 웃었다. 여름이 얼어낸 페널티킥 찬스에

서 정조국이 때린 슈팅이 살짝 골대를 맞고 빨려들어갔다. 2-0의 리드로 광주의 전반전이 마무리됐다.

그러나 후반전 전열을 가다듬은 인천이 높이로 광주를 압박했다.

후반 30분 광주 수비가 방심한 틈을 타 김대수가 만회골을 넣었다. 후반 35분 이번에는 인천이 프리킥 상황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게 공을 올렸다. 왼쪽 끝에서 돌아오는 정병국이 머리로 공을 넘겼다. 그리고 중앙에서 튀어나온 이윤표가 머리로 골망을 흔들었다. 문제는 오프사이드 위치에서 이윤표의 플레이가 이뤄졌다는 것이었다. 광주 선수들과 남기일 감독이 항의를 했지만 논란의 장면은 골 장면이 됐다. 경기는 2-2 무승부로 끝났지만 8위 광주와 10위 인천의 경기였던 만큼 광주에는 승점 2점 이상의 손해를 본 경기가 됐다.

선수들의 투혼에 생체기를 남긴 프로답지 못한 판정. 그라운드 위 선수들과 관중석의 팬 모두 허탈하게 패배를 곱씹어야 했던 악몽의 토요일이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조성준 100경기 출장

꿈의 무대에서 100경기를 이루고도 활짝 웃지 못한 조성준이다.

지난 9일 광주 FC의 미드필더 조성준은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6 K리그 클래식 19라운드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자신의 100번째 출장 기록을 세웠다.

후반 3분 주현우와 교체해 들어간 그는 2-2로 맞선 후반 추가 시간에 결정적인 슈팅 찬스도 맞았다. 그대로 인천 골대를 갈랐다면 잊지 못할 100경기의 날을 만들 수도 있었다. 하지만 송승민, 정동윤에 이어 조성준의 골도 골대를 비켜가면서 광주는 2점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아쉬운 무승부를 기록해야 했다.

조성준은 "꼭 이기고 싶었다. 내가 마지막에 골을 넣었다면 이길 수 있었는데 아쉽고 미안하다. 포인트가 많이 없어서 팀에 미안한 마음이다"며 아쉬운 소감을 밝혔다.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는 못했지만 타



고난 스피드를 앞세워 클래식 무대에서 100번째 경기를 했다. 점에서 의미가 있다.

FC 안양의 공개 테스트 선수 1호인

조성준은 2013년 24경기에 나와 프로 첫 해를 보냈고, 2014-2015년에도 안양의 주축 선수로 활약을 하면서 82경기 나와 10골 7도움을 기록했다. 그리고 광주 선수로 꿈꿔왔던 클래식 무대를 밟게 된 것을 시선 팀의 19경기 중 18경기를 책임지면서 100경기 출장 기록을 세웠다.

조성준은 "클래식 무대에서 100경기를 이루게 돼서 기쁘다. 확실히 클래식 무대는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감독님이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플레이를 하라고 말씀해주신다.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골로 보여드리고 싶다"고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

손연재 카잔 월드컵 후프 은메달·리본 동메달

손연재(22·연세대)가 카잔 월드컵에서 후프 은메달, 리본 동메달을 목에 걸며 올 시즌 출전한 6차례 월드컵에서 모두 메달을 따내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손연재는 9일(이하 현지시간)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2016 국제체조연맹(FIG) 리듬체조 월드컵 마지막 날, 종목별 결선 후프에서 18,600점을 얻었다. 전날 개인종합 때 기록한 후프 18,750점보다 점수는 낮았으나 손연재는 다른 선수들이 큰 실수로 무너지는 틈을 타 은메달을 차지했다.

금메달은 세계선수권 3연패에 빛나는 세계 최강자 야나 쿠드랴체바(19,200점), 동메달은 세계 2인자 마르가리타 마문(18,500점 이상 러시아)이 가져갔다. 손연재는 마지막 종목인 리본에서도 18,500점으로 마문(19,200점), 벨리타나 스타뉴타(18,550점·벨라루스)에 이어 동메달을 수확했다.

이로써 손연재는 2월 26~28일 에스포(개인종합 은, 후프 동, 볼 금, 리본 은), 3월 17~20일 리스본(후프 동, 볼·곤봉 은), 4월 1~3일 페사로(곤봉·리본 은), 5월 27~29일 소피아(개인종합 동, 후프 은, 볼 동, 곤봉 금, 리본 은), 6월 3~5일 과달라하라(볼 동메달)에 이어 올 시즌 출전한



6차례 월드컵에서 모두 메달을 수확하는 기염을 토했다. 전날 개인종합에서 후프(18,750점)-볼(18,750점)-곤봉(18,800점)-리본(18,450점) 합계 74,900점으로 자신의 개인종합 최고점을 새로 쓴 손연재는 이날은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4종목에 걸쳐 모두 실수가 계속 나왔다. 손연재는 볼에서 18,600점, 곤봉에서 18,650점으로 두 종목 모두 4위를 기록했다.

손연재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꼽히는 우크라이나의 간나 리자트디노바는 이번 대회에 불참했다.

한편 손연재는 컨디션과 체력 조절을 위해 올림픽 전 마지막 국제대회인 바쿠 월드컵에 불참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박태환, 리우 간다

CAS "출전 자격 갖춰"

박태환이 (27)이 리우 올림픽에 한국 수영 국가대표로 출전할 수 있게 됐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박태환에게 국가대표로 출전할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박태환은 2004년 아테네 대회부터 4회 연속 올림픽 무대에 오르게 됐다.

박태환은 이미 국내 법원 판결로 리우 올림픽 출전 자격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종목별 국가대표를 최종 승인하는 대한체육회는 "국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존중하며 이에 따르겠다"면서도 "CAS의 잠정처분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박태환의 리우올림픽 대표 선발을 CAS 결정 이후로 미뤘다.

결국 CAS에서도 박태환의 손을 들어줘 체육회로서는 박태환의 올림픽 대표 선발을 늦출 명분이 없어졌다. 체육회는 박태환이 포함된 리우올림픽 참가선수 엔트리를 마감 기한인 오는 18일까지는 대회 조직위원회에 제출해 박태환을 리우올림픽에 출전시키기로 했다.

2014년 9월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



응이 나타나 FINA로부터 올해 3월 2일까지 18개월 선수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던 박태환은 지난 4월 열린 리우올림픽 경영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서 4개 종목에 출전해 모두 올림픽 출전 자격을 획득했다. 그러나 도핑 규정 위반으로 경기단체에서 징계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체육회 규정 때문에 리우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연합뉴스

양학선, 리우 포기

협회 배려에도 부상 회복 더뎠다 대표 평가전 하루 앞두고 기권

아킬레스건 수술 이후 재활 중인 '도마의 신' 양학선(24·수원시청)이 결국 리우 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을 포기했다. 대한체육회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양학선의 리우올림픽 불참을 공식 발표했다.

양학선은 지난 3월 23일 훈련 도중 아킬레스건을 다쳐 수술대에 올랐다. 양학선은 지난 4월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는 불참했고, 5월 국가대표 2차(최종) 선발전에는 참가는 했으나 연기는 펼치지 못했다. 하지만 양학선은 올림픽 출전 의지를 접지 않았다. 아킬레스건 부위 접합이 잘 돼 가고 있다는 병원 진단서를 바탕으로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고, 협회도 양학선이 몇 안 되는 메달 유망주임을 고려해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다.

협회는 대표선수 5명 중 1명은 추천으로 뽑을 수 있다는 규정을 인용해 국가대표 선발전 1~5위 외에 양학선을 추가로 뽑았다. 세 차례 평가전을 거쳐 올림픽 대표 최종 5명을 추리기로 했다. 그러나 결국 양



학선은 9일 자체 평가전을 하루 앞두고 기권하고 말았다.

2011년과 2013년 세계선수권 도마에서 1위를 차지하며 세계 최강자로 우뚝 선 양학선은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한국 체조 사상 최초로 금메달을 목에 걸며 체조 역사의 새를 썼다. 한국 체조 사상 최초의 '올림픽 2연패'를 목표로 구슬땀을 흘렸던 양학선은 부상에 가로막히며 다음 올림픽을 기억할 수밖에 없게 됐다. /연합뉴스